

해방 후의 대종사



국회의원 재직시절 전방시찰 (1950~1954)

(좌)양양 의상대 / (우)강릉 오죽헌 몽룡실

제2대 평창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으로 전방지역을 시찰하는 모습이다.



동국대이사장시절 (1951년경)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동국학원 이사장을 겸직하던 시기의 모습으로, 이후 동국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을 견인하였다.



제2회 세계불교대회참가사진 (1952.10. 東京)

1951년 조선불교 총무원장에 재선출된 뒤 동경에서 열린 세계불교대회에 참가한 모습으로 앞줄 가운데가 지암당 대종사이다.

수행자로서의 회향



1960년대 동명사 신도들과

주문진에 마지막 원력으로 세운 포교당 동명사 신도들과 찍은 사진으로 앞줄 가운데가 대종사이다.



대종사 발인식 사진 (구례 화엄사)

1969년 여름 지리산 화엄사로 주석처를 옮긴 뒤 가을에 입적하신 대종사의 발인식 모습으로 앞줄에 대운, 천운스님과 집전하신 영암스님 등의 모습이 보인다.



(좌)지암당 대종사 부도비 / (우)사리탑

월정사 부도군에 있는 지암당 대종사의 부도비와 사리탑, 1979년에 세워진 것으로 사리탑에는 대종사의 사리 일부를 봉안하였고 비문은 탄허스님이 지으셨다.

지암당 종욱 대종사 행장

- 1884년 속명은 학순(學順), 본관은 전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출생
- 1896년 (13세) 양양 명주사에서 백월병조(白月炳肇)스님에게 귀의해 출가
- 1898년 (15세) 명주사 보룡스님에게 사미계 수계
- 1900년 (17세) 경운, 석상, 진하스님 등 당대의 강백들에게 외전과 교학을 이수하기 시작
- 1905년 (22세) 순천 송광사에서 회광스님에게 비구계, 보살계 수계
- 1908년 (25세) 백담사 설운봉인(雪耘奉忍)스님의 법사로 건당
- 1913년 (30세) 월정사 주지 대리 소임, 월정사 삼보재산 수호
- 1917년 (34세) 월정사 강원 강사 및 감무 소임
- 1919년 (36세) 3.1 독립만세, 27결사대, 상해임시정부 참여
연통계 국내 총책임으로 대동단과 연계활동
- 1920년 (37세)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강원도의원 선출
- 1923년 (40세) 김상옥 의사의 종로 폭탄 투척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 1925년 (42세) 월정사 산중총회에서 사재정리위원으로 추대
한암스님을 상원사 조실로 모심
- 1929년 (46세)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에서 의안심사위원,
대회 부의장에 선출, '조선불교 종헌' 제정
- 1930년 (47세) 월정사 주지 취임 오대산 석존정골탐묘찬양회 조직
월정사복원의 대중적 기반 마련
- 1932년 (49세) 월정사 강원 재건
중앙교무원 평의회회 의장, 서무이사 피선
- 1933년 (50세) 종헌발포 기념식 거행(각황사)
- 1935년 (52세) 상원사에 강원도 3본산 연합수련소 설립. 운영
- 1937년 (54세)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임시회장에 선출
충본산건설 총책임자가 됨
- 1938년 (55세) 태고사(현 조계사) 대웅전 낙성 및 봉불식 거행
- 1941년 (58세) 조선불교조계종 관련 법 인가
조선불교조계종 제1회 종무총장에 지명
해방까지 조계종과 조계사의 종무 총괄
- 1944년 (61세) 강태동, 유석현 등 독립운동가들과 항일무장투쟁결의
- 1946년 (63세) 백범 김구, 이시영 선생이 지암을 찾아 북한산 진관사 참배
- 1950년 (67세) 제2대 국회의원 평창지역 당선(1950.05~1954.05)
- 1951년 (68세) 조선불교 총무원장 재선출
동국대 재단 이사장 취임
- 1960년 (77세) 주문진 동명사 창건
- 1969년 (86세)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입적
세수 86세 법납 73세, 다비 후 사리 96과 수습

지암당 종욱 대종사 특별전 조계종의 수호자

2023.
6.1 (목) — 8.20 (일)

월정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주관 | 월정사성보박물관 • 지암불교문화재단
전시기획 | 해운스님, 지휴스님
전시진행 |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
자업스님(홍순문), 김원중, 김경옥, 서은호, 임진호, 조유나, 황경아, 홍순옥

지암당 종욱(智庵堂 鍾郁) 대종사

(1884-1969)

1884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신 지암당 대종사는 13세로 양양 명주사의 백월병조(白月炳肇) 스님에게 귀의해 출가, 대은(大隱) 스님 뜻에 따라 오대산 월정사 월운(月雲)스님을 시봉하였다.

1898년 명주사에서 보롱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05년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에서 회광스님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으셨다.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가했으며, 한성임시정부에 불교계를 대표하여 가담하였다. 그해 상해임시정부와 국내비밀조직을 연결하는 연통계 활동을 했으며, 상해임시정부 내무부 참사, 국내특파원, 국회의원적인 의정원 의원을 맡았다.

1920년대 강릉 포교당의 개설 등 추진한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갚기 위해 월정사산림을 파는 과정에서 당한 소송에 패하며 폐사의 위기에 처해진 월정사 사재를 정리하는 한편, 조선불교전교양종 승려대회에 월정사대표로 참여하고 해방될 때까지 월정사 주지를 다섯 차례 역임하셨다.

1937년 31본산의 주지들이 모여 총본산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 짓고 건설위원회를 구성할 때 31본산 대표로 추대되어 총본산 건설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총본산 건설을 시행하며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지향하는 등 한국불교의 자주적인 전통을 유지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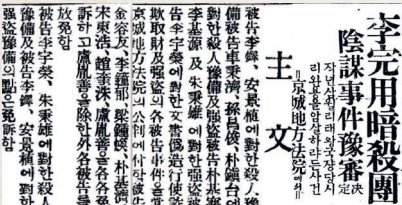
1945년 광복이 되자 종무총장직을 사임하고 이후 대한독립 축성국민회 총무부장, 제2대 국회의원, 동국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문진 동명사에서 말년을 보내다 구례 화엄사에서 1969년 9월 24일(음)에 세수 86세, 법납 73세로 입적하셨다.

지암당 대종사의 항일운동



동아일보(1920.7.1.) 대동단사건에심결정서

동농 김가진을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시킨 대동단 활동내용의 기사



동아일보(1920.9.3.) 이완용암살단음모사건에심결정

상해임시정부 파견원인 대종사가 자금 550원과 건의서를 전달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동아일보 (1958.3.1.) 국내삼일운동의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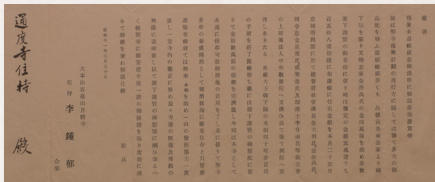
삼일만세운동에 참여를 시작으로 해방직전까지 항일운동에 참여한 내용을 기록한 대종사의 회고 기고문

월정사의 삼보를 지켜낸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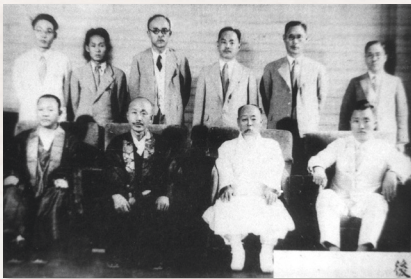
오대산석존정골탐묘찬양회취지서(1931.1)

월정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조직한 찬양회 취지서로, 당시 교정(敎正)이신 한암스님을 비롯해 용성스님과 만공스님, 박영효, 김병로 등 민족지도자들도 동참하였다.



월정사 부채해결 상황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서간 (1936.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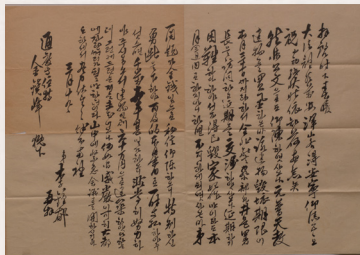
통도사의 경봉선사께 보낸 서간으로 월정사 부채해결 상황에 대한 설명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있다.



월정사 부채정리 기념사진

월정사 부채해결 후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김대우, 김용우, 지암당 대종사, 황금봉, 뒷줄은 홍석모, 성낙헌, 김성권, 이승우, 이갑득, 한성훈

종단의 수호, 조계종의 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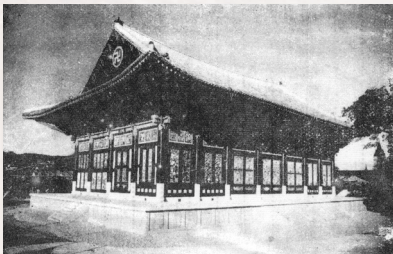
총본산건립 지원금 납부에 관한 서간 (1937.3.19)

통도사의 경봉선사께 보낸 서간으로 총본산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구입한 보천교 십일전의 철거작업을 위해 지원금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총본산 태고사 건립공사 광경

총본사 건립은 1937년 5월에 착수하여 다음해 1938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지암당 대종사를 비롯 31본산의 스님들이 소임을 맡아 진행되었다.



준공된 총본산 태고사(현 조계사) 대웅전 (1939)